

보도시점 : 2026. 9. 6.(일) 11:00 이후(9. 7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4.(금)

자율주행·AI 등 첨단 모빌리티, 국민의 일상으로 ‘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’ 개막

- 카카오모빌리티, 현대자동차, 웨이모, 엔비디아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,
국제교통포럼(ITF)과 함께 자율주행·AI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과 정책 방향 논의

- 자율주행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에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, 이하 TS공단), OECD 국제교통포럼(사무총장 김영태, 이하 ITF)과 함께 9.7(월)~8(화)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‘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’를 개최한다.
 -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, 전문가, 국제기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율주행·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및 일상생활 확산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, 이를 위한 정책·산업의 방향을 논의한다.
 - 올해 주제인 ‘혁신을 일상으로: 적응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(From New to Now: Steering Mobility Innovations Toward Realities)’은 모빌리티 혁신을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·제도적 대응과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
- 이번 콘퍼런스는 ‘자율주행 상용화’, ‘첨단모빌리티와 도시’, ‘자율주행차 안전과 보험’, ‘DRT·AI 기반 물류’ 등 모빌리티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첫째 날(9.7) 기조연설에서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, 스티븐 한 웨이모 전무, 가우라브 아가왈 엔비디아 수석 디렉터가 확장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, AI가 정의하는 안전한 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한다.

- 이어지는 전체 세션에서는 세바스찬 파핑거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 부문장, 버나드 소리아노 캘리포니아 DMV 정책부국장, 현성휘 Pony.ai 실장이 자율주행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발제한다.
 - 또한,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시티추진실장과 손하운 Archer 아시아태평양 총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모빌리티로 재편되는 도시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둘째 날(9.8)은 모빌리티 혁신 확대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비롯해, 기술·안전·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방향을 중점 논의한다.
- 오전에는 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특별세션을 통해 한국·필리핀·중국의 정책·연구 동향을 논의하고, ITF 특별세션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과거와 현재, 미래에 대한 참여·소통형 논의를 진행한다.
 - 오후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보험(삼성화재), 모빌리티 인문학(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), DRT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(TS공단·대한교통학회), AI 기반 물류 모빌리티(한국해양수산개발원·UN ESCAP)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.
-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, 삼성화재, 카카오모빌리티, 웨이모, NVIDIA, Pony.ai, Archer 등 글로벌 민간기업 및 MCube(독일 미래모빌리티혁신 클러스터), CATS(중국 교통운수부과학연구원)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고,
- ITF(국제교통포럼), UN ESCAP, ACI World(국제공항협의회 세계본부), IRU(국제도로운송연맹)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모빌리티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.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자율주행, 인공지능이 이끄는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, 이제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 나가야 한다”며,
- “국내외 모빌리티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, 미래 비전과 글로벌 협력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총괄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	책임자	과 장	강태석 (044-201-3835)
		담당자	서기관	이기림 (044-201-3838)
			주무관	최환석 (044-201-3862)
유관기관	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지원센터 정책지원처	책임자	센터장	김기용 (054-459-7410)
		담당자	처 장	조성진 (054-459-7420)
			선임연구원	조용빈 (054-459-7422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



2026 GLOBAL MOBILITY CONFERENCE

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

혁신을 일상으로: From New to Now:
적응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 | Steering Mobility Innovations Toward Realities

2026. 9. 7.(월) ~ 9. 8.(화) |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

| 프로그램 안내

* 프로그램 구성, 주제, 참여연사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시 간	주요일정
9월 7일 (월) 그랜드 볼룸 (1F)	
10:00 ~ 12:30	개막식
	기조연설 I 자율주행 기술을 일상의 이동으로 류강선 대표 (카카오모빌리티)
	기조연설 II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 - 자율주행, 사회적 약속과 현실 스티븐 한 전무 (WAYMO)
	기조연설 III 시가 정의하는 안전한 모빌리티 가우라브 아가왈 수석 디렉터 (NVIDIA)
	비전토크 Leadership in Action
12:30 ~ 14:00	오 찬
14:00 ~ 16:00	전체 세션 I 성공적인 자율주행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도전과제 BCG, 캘리포니아 DMV, Pony.ai, 국토교통부, 대한교통학회, 현대자동차, 캐나다 교통부, 감·장 법률사무소 등
16:00 ~ 16:20	휴 식
16:20 ~ 18:00	전체 세션 II 첨단모빌리티로 재편되는 도시의 미래 현대자동차그룹,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 (MTCIT), Archer Aviation, BAST, ACI World, 쏘카, 카이스트, Equilibrium Climate Capital 등
9월 8일 (화) 톨립, 오키드 (2F)	
10:00 ~ 12:00	I 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특별세션 한국교통연구원, 국토연구원, 세종연구원, CATS, 카이스트, MCPT, 필리핀 대학교 등
	II ITF 특별 세션 - 모빌리티 혁신의 과거, 현재와 미래 (참여·소통형 세션) ITF, UN ESCAP, CATS, BCG, 몰타 교통부,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 (MTCIT), 카카모빌리티, 아우토크립트, CETMO, 서울시립대학교 등
12:00 ~ 13:00	오 찬
13:00 ~ 15:00	I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보험 삼성화재, IKEM, 한국교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동차손해배상전흥원, 경찰대학 등
	II Mobility Humanities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, 모나쉬 대학교, WPI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 등
15:00 ~ 15:20	휴 식
15:20 ~ 17:20	III DRT의 현재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한국교통안전공단, 현대자동차, MCube, EY Strategy&Consulting, VGU, ITF, 고려대학교 등
	IV AI 기반 물류 모빌리티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산동성 칭다오항그룹, UN ESCAP, PSA BDP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블루어드, 현대로템 등

주 최 |  국토교통부
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주 관 |  한국교통안전공단
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

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

 대한교통학회
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

 한국교통연구원

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 AMH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
KJU Academy of Mobility Humanities



운영사무국 | globalmobilityconference@gmail.com

홈페이지 | mobility.or.kr

mobility.or.kr